

현대모비스-KT, 미래차 개발 손잡다

車 제어시스템 + 5G 통신... 커넥티드카 개발 본격화

서산주행시험장에 5G통신 개통 C-V2X 등 연내 기술확보 총력 협력 통해 커넥티드카시장 선도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대도

현대모비스가 KT와 손잡고 자율주행-커넥티드 미래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커넥티드 기술 개발을 위해 통신사와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와 KT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을 개통하고, 이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KT가 서산주행시험장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것이다.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바탕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 ▲차량 사물 간 통신(C-V2X, Cellular Vehicle to X)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은 선행 차량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서버로 보내면,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해 후행 차량들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최적의 주행경로 업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 구현 개념도(왼쪽)와 5G 인프라를 활용한 엠빌리 자율주행차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현대모비스

데이트를 통해 안전하고 빠른 주행을 가능케 하는 자율주행시대 핵심 기술이다.

현재 통신사와 IT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4G에 비해 통신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5G망을 이용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회사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엠빌리(M.Billy)의 각종 센서들을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주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를 추출해 서버로 송신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KT는 엠빌리에 장착되는 5G 단말기와, 5G 통신 기지국 간 연결을 지원한다.

C-V2X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차량

과 인프라, 다른 차량, 보행자 등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은 현대모비스가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 시스템을 전담하고, KT는 교통정보 서버와 인프라 장치를 이용해 도로공사 정보, 신호 등 정보, 급커브 경고 등을 차량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현대모비스와 KT는 이들 기술을 시작으로 협력분야를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 전방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2015년 2400만대였던 전 세계 커넥티드카 판매량이 2023년 725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RM은 2017년 커넥티드카 시장은 82조원 수준에서 2025년 245조원으로 연평균 1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양사의 기술협력으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다. 특히 5G의 빠른 처리 속도에 즉각적인 응답성, 높은 신뢰성, 지속적인 효용성을 접목해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미래자동차 센서와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은 물론,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분야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T도 세계 최고 수준의 5G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플랫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재호 현대모비스 EE연구소장(전무)은 “커넥티드카는 차량 외부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간 협력이 활발한 분야”라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기술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KT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된 만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커넥티드카 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아이오닉 3년 만에 재탄생

‘더 뉴 아이오닉’ 본격 판매 FCA 등 안전기술 기본 탑재 ‘그린존 모드’ 신규 사양 적용

친환경차의 대명사 아이오닉이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내·외장 디자인을 변경하고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한 ‘더 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플러그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더 뉴 아이오닉에 동급 최초로 ▲10.2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LF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특히 별도의 선택사양을 적용하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 폰 커넥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기본 적용했으며, 기존에 가장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사양으로 적용할 수 있던 ▲전방 충돌 경고(FCW)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경고(LD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지능형 안전기술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외장은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램프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적용하고 ▲입체적인 패턴이 더해진 메쉬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커튼이 통합적용된 주간주행등(DRL) 램프부 ▲신규 컬러가 적용된 리어 범퍼 ▲신규 디자인 휠 등으로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확보했다.

실내는 ▲인조가죽 시트 ▲인조가죽을 적용한 클러스터 하우징 ▲온도 조절부를 터치 타입으로 적용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구현한 터치 타입 공조 컨트롤 ▲패적한 실내 공기를 위한 마이크로 에어 필터 및 공기청정모드 등을 전 트림에 기본화했다. 최상위 트림에는 크래쉬패드 무드램프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현대차는 친환경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더 뉴 아이오닉에 특화된 신규 사양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밀집주거 지역, 대형병원, 학교 등 그린존 내부도로 진입 시 모터 주행을 확대하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GDM)’를 제공한다.

더 뉴 아이오닉의 모델별 가격(개별소비세 3.5%, 세제 혜택 후 기준)은 하이브리드 ▲I트림 2242만원 ▲N트림 2468만원 ▲Q트림 2693만원, 플러그인 ▲N트림 3134만원 ▲Q트림 339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고객만족 최우선... 4년 연속 수입차 1위 도전”

실라키스 벤츠 사장 신년 간담회 작년 수입차 첫 7만대 판매 돌파 올 14개 신차출시로 성장 가속화

“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고객 서비스 등 퀄리티를 높여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4년 연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수입차 업계 최초로 7만대를 돌파하며 3년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신차 14개 출시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라키스 사장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혁신과 차별화를 추구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한해여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와 경제의 동반자이자 수입차 업계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벤츠 코리아의 판매 성장을 이끈 모델은 E클래스다. 지난해 3만5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SUV 모델도 수입차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상반기 출시된 더뉴 GLC 350e 4매력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하반기 선보인 더뉴 CLS와 부분 변경된 더뉴 C클래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벤츠 코리아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최초 순수 전기차 더뉴 EQC를 출시하게 될 올해를 ‘EQ의 해(The Year of EQ)’로 삼고, 최대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더뉴 EQC 출시와 함께 구매자에게 통합충전 서비스 ‘메르세데스미 차지(Mercedes me Charge)’를 제공한다.

더뉴 EQC 구매자는 전국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맞춤형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1대1 컨설팅 서비스 ‘EQ 컨시어지(EQ Concierge)’, 인접한 공용 충전소 위치 및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앱 ‘메르세데스미(Mercedes me)’와 EQ 환경에 최적화된 차량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받는다.

벤츠 코리아는 순수 전기차 및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외에 9종의 신차, 6종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벤츠 컴팩트카 패밀리를 완성할 더뉴 A클래스 세단,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를 개척한 더뉴 GLE, 메르세데스-AMG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4도어 스포츠카 더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가 대표 모델이다. 또 모든 라인업에 걸쳐

30여개 이상의 새로운 트림을 추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서비스 인프라 확장 및 품질 강화에 투자를 지속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4개의 공식 전시장과 64개의 공식 서비스센터, 21개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 1100여개의 작업대(워크베이)를 갖춰 수입차 단일 브랜드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최고의 고객 경험”이라는 가치 아래 서비스 인프라 확장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며 “올해는 전시장 60개, 서비스센터 7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객의 연평균 서비스 예약 대기일은 1.6일로 전년 대비 36% 단축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가 누적 1만5500명을 넘어섰으며, 35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김치를 담가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실라키스 사장은 소개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